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오랫동안 동물을 식량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싱어를 비롯한 공리주의자들은 식사를 위해 동물을 살해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바자니는 일정 조건 아래에서는 동물을 식량으로 취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공리주의자들의 반(反)육식 논증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바자니의 반론과 공리주의자들의 재반론을 검토한다.

공리주의란 가능한 모든 행위 중 고통 대비 쾌락의 순효용을 가장 크게 증가시키는 행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때 순효용의 계산에는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추구하려는 이익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익을 지닌다는 것은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이익은 고통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공리주의자는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이익을 지닌 모든 존재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쾌락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싱어와 같은 공리주의자들은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다음과 같은 논증으로 육식에 반대한다.

㉠ 공리주의가 옳다면, 이익을 지닐 수 있는 모든 존재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 인간이 식용으로 이용하는 동물들도 이익을 가질 수 있다.

㉢ 동물들을 사육하고 도살하는 과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매우 큰 고통을 야기한다.

㉣ 이러한 고통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물의 사육과 도살을 중단하는 것이다.

∴ 공리주의가 옳다면 우리는 고기를 얻기 위해 동물을 사육하고 도살해서는 안 된다.

싱어는 ㉢을 옹호하기 위해 현대 축산업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많은 동물들이 자연스러운 행동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로 협소한 공간에서 사육되며, 사육·운송·도살의 전 과정에서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경험한다. 나아가 이러한 고통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미각적 기호와 식습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동물들이 겪는 지속적이고 강렬한 고통은 인간이 육류를 섭취하며 얻는 비교적 일시적인 쾌락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을 옹호하며, 대부분의 성인은 육식 없이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육식을 통해 얻는 쾌락 역시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이 육식을 통해 얻는 쾌락보다 동물이 도살당함으로써 유발되는 고통이 더욱 크기에, 사육

과 도살의 중단이 순효용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된다.

그러나 바자니는 공리주의자들의 논증에 반기를 든다. 그는 ㉢과 ㉣을 각각 비판함으로써 무조건적인 육식 금지는 논리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선 바자니는 ㉢을 문제 삼기 위해 '고통'과 '고난'의 개념을 엄밀히 구분한다. 고통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쾌한 감각 자체를 가리키는 반면, 고난은 단순한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고통과 이에 따른 의식·기억·예기(豫期) 등이 결합된 복합적이고 고차원적인 경험이다. 바자니는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동물은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고 미래의 고통을 예기하는 상위 인지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기에 고난을 경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사육이나 도살로 인해 동물이 겪는 고통을 ㉢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매우 큰 고통'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다음으로 바자니는 ㉣이 지나치게 좁은 가능성만을 상정한다고 비판한다. 그는 사육 환경의 개선을 통해 동물들이 겪는 고통을 충분히 줄일 수 있기에, 사육이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한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다. 나아가 자연 상태의 동물들 역시 추위·굶주림·질병·포식 등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인도적으로 관리된 사육 환경의 동물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반드시 사육과 도살의 전면 중단이어야 한다는 논리적 필연성은 없다고 결론 내린다.

이러한 바자니의 비판에 대해 공리주의자들은 재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먼저 공리주의자들은 인간과 동물이 느끼는 고통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차이가 동물의 고통을 무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설령 동물이 고난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현대 축산업은 동물들에게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다. 반면 인간이 육식을 통해 얻는 이익은 주로 미각적 만족에 불과하며, 다양한 대체 식품으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쾌락은 다른 방식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동물이 도살로 인해 겪는 고통은 되돌릴 수 없다. 대체 가능한 쾌락을 위해 대체 불가능한 고통을 초래하는 것은 순효용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공리주의자들은 사육 환경 개선론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공리주의적 계산은 개별 개체가 겪는 고통의 강도뿐 아니라 그 지속 시간과 영향을 받는 개체 수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현대 사회에서 육식 수요를 충족할 규모의 사육을 유지하려면 대규모 축산이 불가피하며, 그 규모에서 고통 없는 사육을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부 이상적인 소규모 사육의 가능성만으로 현실의 대규모 축산 시스템을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육식의 중단만이 최대 다수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결론을 유지한다.

4. 윗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육식 문화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기술하고 있다.
- ② 공리주의 이론의 내적 모순을 분석한 뒤 이를 극복할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공리주의의 반육식 논증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④ 두 이론가의 견해를 대등하게 소개한 뒤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고 독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 ⑤ 동물 윤리에 관한 다양한 학파의 입장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공리주의에서 이익이란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
- ② 싱어는 현대 축산업의 고통이 인간의 생존이 아닌 미각적 기호를 충족하기 위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본다.
- ③ 바자니는 고난이 고통과 의식·기억·예기 등이 결합된 복합적 경험이라고 규정하며, 동물은 이 수준의 경험에 이르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 ④ 바자니는 자연 상태의 동물이 사육 환경의 동물보다 항상 더 적은 고통을 겪는다고 주장하며 사육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⑤ 공리주의자들은 육식 수요를 충족할 규모의 대규모 사육에서 고통 없는 환경을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6. ㉠과 ㉡에 대한 바자니의 반론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바자니는 ㉠에 맞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그것이 고난의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본다.
- ② 바자니는 ㉡에서 말하는 '매우 큰 고통'이라는 규정이 성립하려면 고통과 의식·기억이 결합된 고난이어야 한다고 전제한다.
- ③ 바자니는 ㉡에 맞서 사육 환경의 개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들어, 사육과 도살의 중단만이 고통 최소화의 유일한 수단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 ④ 바자니는 ㉡을 비판할 때 자연 상태의 동물이 처한 위협 환경을 언급함으로써, 사육이 반드시 고통을 수반한다는 논리를 약화하고자 한다.
- ⑤ 바자니는 ㉠과 ㉡을 모두 비판함으로써 공리주의 이론의 ㉠과 ㉡까지 부정하고,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공리주의적 행위 평가에서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의 이익은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 고통의 총량 계산: 고통의 강도뿐 아니라 지속 시간과 영향을 받는 개체 수를 종합하여 계산한다.
- ㉢ 대체 가능성 원칙: 동일한 쾌락이 다른 방법으로 달성 가능하다면, 고통을 초래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 ① 공리주의자들이 동물의 고통을 도덕적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에 근거한다.
- ② 공리주의자들이 대규모 사육의 개체 수와 고통의 지속 시간을 강조하는 재반론은 ㉡와 일관된다.
- ③ 대체 식품을 통해 충분한 영양 섭취가 가능하다는 공리주의자들의 주장은 ㉢를 전제로 육식을 비판하는 것이다.
- ④ 바자니가 고통과 고난을 구분하여 동물의 고통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을 수용하면서 ㉡의 계산 범위에 동물을 포함시키자는 주장과 동일하다.
- ⑤ ㉠과 ㉢를 함께 적용하면, 인간이 대체 식품으로도 동등한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육식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8. 다음은 학생이 윗글을 읽고 작성한 독서 노트이다. A~C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독서 노트

- 바자니의 반론 ①: 고통 ≠ 고난 → ㉠ 약화
- 바자니의 반론 ②: 사육 환경 개선 가능 → ㉡ 약화

- 공리주의 재반론 ①: 고통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A 이므로 육식의 중단은 여전히 요청된다.
- 공리주의 재반론 ②: 현실에서 B 이므로, 이상적 사육 환경 개선론만으로 대규모 축산 시스템을 정당화할 수 없다.
- 두 입장의 핵심 쟁점: C

- ① A: 인간의 미각적 쾌락은 대체 식품 등으로 대체 가능한 반면, 동물이 도살로 입는 고통은 되돌릴 수 없다.
- ② B: 육식 수요를 충족할 수준의 대규모 사육에서 고통 없는 환경은 실현하기 어렵고, 수많은 개체가 지속적 고통을 겪는다.
- ③ A: 동물이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수치로 증명된 이상, 고통의 총량이 인간의 쾌락보다 작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명하다.
- ④ C: 동물의 고통과 인간의 쾌락 중 어느 쪽이 순효용 계산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
- ⑤ B: 소수의 인도적 사육 사례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의 산업적 대규모 축산 전체를 대표하거나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9. 윗글의 '싱어'와 '바자니'의 견해를 <보기>의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어느 소규모 농가에서 넓은 초지를 제공하고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소를 사육한 뒤, 신속하고 고통 없는 방식으로 도축한다. 이 농가의 쇠고기 소비는 전체 육류 시장에서 극히 미미한 비중을 차지한다. 해당 지역 소비자들은 이 쇠고기가 아니더라도 영양적으로 동등한 다른 식품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 ① 싱어는 이 농가의 도축이 동물에게 고난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 ② 싱어는 소비자들이 대체 식품을 구할 수 있음에도 이 쇠고기를 선택하는 것이, 대체 가능한 쾌락을 위해 대체 불가능한 동물의 고통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비판할 것이다.
- ③ 바자니는 이 농가의 사육 환경이 인도적이더라도 도축 행위 자체가 동물에게 고난을 준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할 것이다.
- ④ 바자니는 소규모 사육이 고통을 줄인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연 상태의 동물이 언제나 더 적은 고통을 겪는다는 이유로 이 농가의 사육 자체를 반대할 것이다.
- ⑤ 싱어와 바자니 모두, 이 농가의 사례가 현대 축산 전반에 확대 적용될 수 있다면 육식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동의할 것이다.